

간호사의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

손 정 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세계에서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 수는 3천3백40만 명으로, 1998년 한해에만 5백8십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의 감염 속도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00년까지 HIV 감염자 수는 4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정두련, 1998; 대한에이즈협회, 1999).

우리 나라의 경우 1985년 12월 HIV 감염자가 처음 확인된 후 국내에서도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매년 새로 확인되는 감염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99년 6월말 총 감염자수는 9백64명이며 환자로 전환된 수는 145명이다(대한에이즈협회, 1999). 더욱이 실제 감염자 수는 정부에 보고되는 HIV 감염자 숫자의 4내지 5배라는 추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덕형, 1998). 따라서 현 감염자들 뿐만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HIV 감염자의 대부분이 수 년 내에 AIDS 환자로 전환하게 되며, 더욱이 약제의 개발에 따라 예전의 급성이며 생존기간이 짧고 치명적이었던 AIDS는 생존기간을 몇 년 이상으로 잡아야 하는 만성질환으로 변화되었

으므로, (Breault, et al., 1992; Fishl, et al., 1987) 머지않아 병원이나 지역사회에서 AIDS환자 간호와 관리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Siminoff, Erlen & Lidz(1991), Lewis & Coffee(1991)는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이 되는 간호사들이 AIDS 환자 관리의 중추적, 촉진적 역할을 해야하는 인력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간호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까지 AIDS 환자 간호의 기회가 별로 없었고, 간호학 교육에서도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성억(1998)이 에이즈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환자들이 AIDS관리 전담요원의 양성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병원의 AIDS 환자 관리에서 간호사는 중심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감염자 상태의 감시, 약물 투여, 기회감염의 예방, 전반적 건강상태 유지 등을 위한 역할들도 간호사가 담당하여야 할 몫이다.

현재 AIDS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 대중의 AIDS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AIDS환자들에 대한 거부적 태도가 뚜렷이 지적되고 있으며(신영희, 홍영혜, 1996a, 1996b; 장순복, 1994; 진기남, 1998; Chang S. B. & Hill M. N., 1996), 장순복과 이창우(1997)의 연구에서는 에이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즈 관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수용적 태도의 점수는 54.76/100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전춘영 등, 1997)에서도 AIDS교육이 지식의 점수는 크게 향상시킨 반면, AIDS환자에 대해 가진 대인관계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편견은 변화시키지 못하였다고 나타나, AIDS 환자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가 다른 질환을 지닌 환자에 대한 태도와는 다를 수 있다.

AIDS환자 간호가 일찍 시작된 외국의 경우, 많은 연구들에서 AIDS와 관련된 사회적인 오명과 부정적인 편견, 감염가능성에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해 다른 질환과 달리 간호사들이 AIDS 감염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거나 AIDS 환자에게 대한 직접 간호를 거부하는 현상이 있음을 보고하여 AIDS 환자 간호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실정이다. (Katz, et al., 1987; Maram, 1988; Siminoff, 1991; Van Servellen, et al., 1987).

간호사가 질환에 대해 가진 지식과 태도는 환자-간호사 관계 및 간호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당면한 AIDS 환자 간호 요구의 증가에 대비한 간호인력을 준비하고 계속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간호사들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나 아직 국내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간호사들이 AIDS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AIDS 환자 간호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AIDS와 관련한 간호사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AIDS 관련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조사 연구를 시도하였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AIDS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을 파악한다.
- 2) AIDS 감염위험 인지 정도를 파악한다.
- 3) AIDS 환자 간호에 대한 수용 정도를 조사한다.

- 3) AIDS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를 알아보고, 태도의 이유를 알아본다.

3. 용어의 정의

- 1) 지식 : 개인이 어떤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이희승, 1989)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AIDS의 정의, 원인, 진단, 감염 경로 및 치료에 관한 14문항에 대한 대상자의 정답율이다.
- 2) 태도 : 사람이 그 환경 속에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 호의적, 비호의적 또는 중간적 반응을 일관성 있게 나타내는 것이다(홍대식, 1986). 본 연구에서는 AIDS 또는 AIDS환자 간호와 관련하여 간호사가 자신의 반응을 예, 아니오 또는 모른다고 나타낸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사들만을 대상으로 표출하였으므로, 결과를 전체 간호사에게 일반화시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한다.

II. 문헌 고찰

1. AIDS의 현황

현대의 질병 중 후천성 면역결핍증: Acquired Human Immune Deficiency Syndrome(AIDS) 만큼 참혹하고 두려운 질병은 없다고 한다. AIDS는 인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HIV)의 감염으로 인해 인체의 세포성 면역에 관계하는 CD4 림프구가 파괴되고,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주폐포자충(Pneumocystis carinii), 인거대세포바이러스(humancytomegalovirus) 등에 의한 기회감염이나 악성종양이 합병되는 감염병이다.

1981년 미국 San Francisco에서 동성연애자들에게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주폐포자충에 의한 폐렴이 보고되면서 질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연구 결과 1984년 프랑스 파리의 파스티르 연구소와

미국 암연구소에서 각각 발견하게된 이 바이러스는 1986년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라고 명명하였으며 1985년 HIV에 대한 항체를 검사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김정순, 1994).

1998년 12월까지 WHO에 보고 집계된 전세계의 감염자 수는 3400만 명에 달하며, 환자 수는 120만 명이다(대한에이즈예방협회, 1999). HIV감염자의 2/3가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사하라 남부지역이 가장 심각하다. 아시아지역에서는 80년대 중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1997년 중반 이후 남부(인도, 파키스탄) 및 동남아시아지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환자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아프리카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위협도 받고 있다.

HIV의 전파경로는 크게 3가지로, 첫째가 HIV에 감염되어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한 전파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HIV 감염자의 70% 이상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감염된다(우준희, 1998; Whipple, 1995). 두번째는 혈액 및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으로 HIV에 감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수혈 받거나(전파확률은 90% 이상 거의 100%), HIV에 감염된 사람과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할 때(전파확률은 약 1% 내외), 의료종사자가 HIV 감염자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감염자의 혈액 및 혈액제제에 노출되었을 때(전파 확률은 0.5%이하)가 이에 포함된다. 세번째는 주산기 감염으로 HIV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을 하면서(전파확률은 30% 내외) 아기에게 감염시키는 경우이다. 그 외에 virus는 침, 눈물, 양수, 소변, 모유, 뇌척수액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 virus는 체외에서는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한다.

에이즈에 대한 치료는 단백분해효소억제제와 역전사효소억제제의 병합요법에 의해 HIV RNA를 감소시키려는 노력과 기회감염증 및 암에 대한 치료와 손상된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약제의 개발로 감염자들의 사망률이 지난 3년 사이에 무려 5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대한에이즈예방협회, 1999) 이들 약제가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회복시키

지는 못하고 있다(송영구, 1998).

AIDS 증상의 시작에서 사망까지의 기간은 특히 병원치료를 집중적으로 요하는 기간이다. 개인에 따라 이 기간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이 6개월에서 2년 내에 사망하게되는데, 병원치료를 받게 되는 기간은 환자 당 평균 41일의 재원기간을 갖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양봉민, 1998).

우리 나라는 1985년이래 매년 평균 110.6명씩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있는 실정으로 99년말 약 1000명의 감염자가 보고되었는데, 감염 요인의 85%가 성적 접촉이며 그 중 67%가 국내 또는 국외 이성 접촉에 의한 것이며, 동성연애자의 감염도 1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수혈로 인한 감염은 68%이며 태아감염에 의한 것이 1명 보고되어 있다. 남녀의 성비는 약 8:1로 대부분 남자이지만 여성 감염자가 늘고 있고, 전체 감염자의 70%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20,30,40 대이다.

정부에서는 1985년 6월 AIDS 관리 대책을 수립한 이래 1987년에 에이즈 관리 센터를 국립보건원 내에 설치하여 AIDS 확산 방지와 HIV 감염자와 AIDS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보호, 정기보건교육과 상담을 통해 HIV/AIDS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HIV 감염으로 인한 유행을 또는 사망을 감소시키며 에이즈 환자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기여할 수 있도록 보호, 협력하는 일을 하고 있다(이덕형, 1998; 최철호, 1999).

2. 간호사의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

우리보다 AIDS에 일찍 접한 서구에서는 일반 대중 및 보건의료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공포, 사회적 오명, 동성애 공포 및 거부적 태도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보고되어 있다.

Robbins, Cooper & Bender(1992)들은 간호사 112명과 심리학과 학생 63명과 디자인과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AIDS/HIV에 대한 지식과 태도, HIV양성자나 고위험군과의 접촉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간호사들은 학생들에 비하여 지식 정도는 높았으나($P < 0.001$) 학생들보다는 더욱 부정적인 태도($P < 0.01$)를 보였으며 세 그룹 중 접촉 정

도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고, 지식에만 치중한 교육과정은 간호사들의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거나 불안 수준을 낮출 수 없다고 하였다.

Armstrong-Esther, et al.(1989)이 간호사 65명과 간호학생 70명을 대상으로 AIDS의 지식과 지각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75%이상이 질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부족하다고 믿고 있으며 90%이상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고 나타났다. 간호사의 80%와 간호학생의 69%가 감염에 대해 우려하였으며, 나이가 많고 임상경험이 많은 간호사일수록 감염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했고, 자신들과 타 환자들을 위해 환자의 격리가 필요하고, 환자의 기회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역격리를 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3개 병원 16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AIDS 환자 간호에 대한 태도와 느낌에 대해 질적 연구를 행한 Breault, et al.(1992)에 의하면 간호사들은 공포, 분노, 동정심, 피로, 절망감, 자기효능감을 나타냈는데, 모든 간호사들이 AIDS 환자 간호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포를 갖고 있고 위험을 지각하고 있었으며, 처음 환자를 간호하게 된 경우는 교육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공포를 갖게되며, 그 결과 필요이상으로 주의하거나 환자의 콜벨에 응답을 않거나 환자방에 가지 않는 등의 환자와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행동들이 나타났다.

Lewis, et al.(1991) LA지역의 공중보건간호사 200 명을 대상으로 AIDS 환자 간호와 관련한 태도, 경험, 교육요구에 대해 조사한 바로는 AIDS 환자 간호를 기꺼이 하겠다는 질문에 41.3%가 않겠다고 답하였다. 실제 AIDS 환자와 일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의 불편감은 경험이 없는 간호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보수교육의 시간이 증가할수록 부정적 태도가 유의한차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아시아계의 간호사들은 히스패닉계, 백인, 흑인계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불편감을 나타냈으며 정맥주사마약으로 인한 AIDS 감염자를 간호하기를 꺼렸다.

이상과 같이 서구의 간호사들은 AIDS 환자 간호에 대해, 공통적으로 감염에 대한 불안,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간호하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식수준과 태도간의 관계는 연구들 간에 일

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AIDS 환자와의 접촉이 잦을수록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태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태도들이 환자 간호를 거부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병원간호에서 AIDS 환자를 많이 접할 수 없는 상황이며 AIDS 환자간호에 대해 강조하지 않고 있으므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AIDS 관련 연구문헌은 몇 편 되지 않으며, 주로 대학생(김영희, 1990; 신영희, 홍영혜, 1996a, 1996b), 고등학생(동 방승희, 1988; 윤현숙, 1997; 이영나, 1990; 황인선, 1992), 가임 여성(장순복, 1994), 윤락여성과 직장인(진기남, 1998) 등을 대상으로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거나 AIDS 교육의 효과를 조사한 것들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지식정도는 낮고, 배타적, 비난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가족 또는 친구가 환자인 경우 동정적인 면을 보였고(신영희, 홍영혜, 1996a, 1996b), 간호대학생 역시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었으며(김영희, 1990), 여고생들은 AIDS에 대한 교육의 결과 지식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부정적 태도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윤현숙, 1997), 청소년의 경우에도 AIDS 교육으로 인한 지식의 향상이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황인선, 1992). 가임 여성의 경우도 지식정도는 낮고, 부정적인 편견을 보였으며(장순복, 1994) 직장인들은 감염자들에 대해 동정심은 보이고 돕겠다고 한 반면, 두려움과 부정적 태도를 동시에 보였다.(진기남, 1998)

이상과 같이 우리 나라의 일반대중들의 경우 대다수가 AIDS에 대해 지식정도가 낮으며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감염자 및 환자에 대해 거부적 태도를 보이면서 환자개인에 대해서는 동정적이였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춘영 등(1988)이 보수교육에 참가한 99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AIDS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간호사들은 AIDS 환자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거나 환자자신이 병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등의 부정적인 편견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반응은 교육 실시 후에도 차이가 없어 질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지식에 의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IDS 환자와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교육실시 후에는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 범주 내에 있었다. 간호사들의 지식정도는 교육 전 평균 61.3에서 84.8로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다.

장순복, 이창우(1997)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건강상담자, 보건강사 등의 건강관리자 431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관련교육이 지식, 태도, 예방의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조사한 연구에서, 교육은 AIDS 관련지식을 유의하게 향상시켰으며 수용적인 태도도 향상되었고, 예방의도도 교육 후에 유의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전의 지식정도는 의료인이 지식점수가 가장 낮은 65점으로 ($p=0.000$) 전춘영 등(1988)의 조사에서 나타난 61.3점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들 조사연구에서는 간호사 또는 의료인들이 일반 대중에 비해 높지 않은 지식정도를 갖고 있으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개인으로서의 편견정도와 사회적 상호작용 가능성, 에이즈 수용 태도를 밝힌 것으로 점진적 간호사의 태도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며, 외국의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간호사의 태도가 환자간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및 대상

간호사들의 AIDS에 대한 지식과 AIDS 환자 간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서술적 조사 방법을 택하였다. 연구대상은 등록간호사들로 병원 근무 간호사, 양호교사, 대학원 재학중인 간호사들이며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설문지에 답해준 간호사는 276명이었다.

2. 자료 수집

자료수집은 1998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2개 대학병원의 간호사 250명에게 간호부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응답 하게 한 후 수집하였고, 양호교사 연수에 참여한 간호사 40명과 2개 대학교의 대학원 간호학과 과정 수학 중인 간호사 36명에게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가응답 하게 하여 총 276부를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기재가 미비한 6명의 자료를 제외한 270부를 분석자료로 하였다.

3. 연구 도구

문헌고찰을 토대로 전춘영 등(1997)과 신영희, 홍영혜의(1996)의 연구도구 중 지식측정 문항, Forrester & Murphy(1992)의 태도측정 문항을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AIDS 간호 경험을 묻는 5문항과, AIDS에 대한 지식 14문항, 위험인지 정도를 묻는 4문항, 질병별 환자에 대한 수용도 5문항 그리고 AIDS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묻는 6문항으로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14개의 AIDS 지식을 묻는 문항들은 AIDS의 정의와 진단, 치료, 전파과정, 예방에 대한 것이며, 각 문항의 내용에 대해 맞다, 틀린다고 답하게 하였다. 지식 문항의 두번째 문항과 여덟번째 문항은 역문항이며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0.79$ 이었다.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간호사로서의 AIDS 환자 간호에 대한 태도, AIDS 환자 치료와 관리에 대한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예, 아니오, 모르겠다고 물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alpha=0.81$ 이었다. 각 문항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한 이유를 각각 기술하게 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AIDS에 대한 위험지각

은 각각 실수와 백분율을 내고, AIDS에 대한 지식은 각 문항에 대해 정답자와 오답자의 실수, 백분율을 내고, 개인별로는 정답을 답한 경우는 1점, 오답과 모르겠다에 답한 경우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AIDS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의 차의 검정은 t-test와 ANOVA를 구하였다.

AIDS에 대한 태도는 각 문항에 대해 예와 아니오로 답한 것에 대한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자신들의 태도에 대해 이유를 밝힌 경우, 간호사들이 직접 기술한 이유들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빈도를 세어 빈도수 1위와 2위의 이유들을 순위대로 제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조사대상 270명 중 98.9%가 여성이며, 연령은 20대가 129명(47.8%), 30대가 110명(40.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미혼이거나 독신인 경우가 145명(53.7%)이었다. 교육정도는 전문대 졸업자가 153명(57.3%), 4년제 대학졸업자 81명(30.3%), 대학원 졸업이 33명(12.4%)이었다. 이들 중 최근 1년간 AIDS 환자에게 직접간호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4명(5.2%)이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70)

특 성		실 수	%
성 별	남	3	1.1
	여	267	98.9
연 령	20-39	129	47.8
	30-39	110	40.7
	40세 이상	31	11.5
결 혼	독신	145	53.7
	결혼	125	46.3
학 력	전문대학졸업	153	57.3
	대학	81	30.3
	대학원 이상	33	12.4
AIDS 환자간호 경험	유	14	5.2
	무	155	94.8

2. AIDS 에 대한 간호사의 지식정도

AIDS에 대한 지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 2>를 보면, AIDS의 정의에 대해서는 94.4%가 정답을 말하였다. 감염 경로 중 혈액이나 점액을 통해 97%, 감염된 주사바늘 96.3%, 수혈 93%의 높은 정답율을 나타냈고, 감염경로 중 동성간의 성 관계를 하는 경우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데 대해서는 77.8%가 정답율을 나타냈는데, AIDS가 모유수유를 통해 영아에게 감염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69.3%로 정답율이 낮았다.

<표 2> AIDS에 대한 지식 (n=270)

지식 내용	정답자	
	실수	%
1. AIDS는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파괴한다	255	94.4
2. HIV양성인 사람은 페니실린으로 치료될 수 있다	206	76.3
3. 혈액반응검사가 양성인 사람은 HIV보균자이다	205	75.9
4. 마약 투여자는 AIDS 감염 위험이 크다	119	44.1
5. 정맥주사 마약투여자와의 성관계는 AIDS 감염위험이 크다	107	39.6
6. 수혈은 AIDS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251	93.0
7. 동성간의 성관계는 AIDS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210	77.8
8. AIDS는 조기에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	218	80.7
9. AIDS는 혈액이나 점액으로 전염될 수 있다	262	97.0
10. AIDS는 감염된 주사바늘로 전염될 수 있다	260	96.3
11. AIDS는 콘돔을 사용하므로써 예방될 수 있다	199	73.7
12. 어머니는 태아에게 HIV를 전염시킬 수 있다.	248	91.9
13. HIV 양성 혈액의 수혈은 AIDS에 감염될 수 있다.	253	93.7
14. HIV 양성 엄마의 모유수유는 아기가 감염될 수 있다.	187	69.3

AIDS의 치료에 대해서는 AIDS가 페니실린으로 치료될 수 있다 76.3%, 혈액반응 검사가 양성인 사

람은 HIV 보균자이다 75.9 %, AIDS는 조기에 치료될 수 있다에 대해서는 80.7%가 정답을 말했다.

정맥주사마약 사용자와의 성관계(39.6%)와 마약 투여자의 감염위험(44.1%)에 대해서는 지식 내용 중 가장 정답율이 낮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점수의 차를 알아 본 바로는 연령, 종교, 결혼여부 수입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학력에 따른 지식 점수의 차(표 3)는 각각 전문대학 11.2,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11.47, 대학원 이상 졸업자가 12.55점으로 유의한차(p=0.0032)를 보여 학력이 높을수록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3〉 학력에 따른 AIDS 지식

학 력	실수	평균	SD	F	P
3년제 대학	153	10.77	2.14		
4년제 대학	81	11.07	2.06	4.46	.012
대학원이상	33	11.93	1.45		
계	267	11.01	2.07		

3. AIDS에 대한 위험인지 정도

대상자들이 AIDS에 대해 얼마나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는 〈표 4〉와 같다. 자신의 직업이 AIDS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1.0%, 중정도의 위험이 있다가 33.6% 모두 64.6%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환자로부터 감염될까 매우 걱정된다고 답한 사람이 21.3%, 다소 걱정된다가 51.1%로 72.4%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의료요원의 감염위험에 대해 묻은 결과 매우 높다 22.0%, 다소 높다 55.2%로 77.2%가 감염위험이 높다고 답하였다.

〈표 5〉 질병별 환자에 대한 수용도

질 병	태 도							
	아주 기꺼이 돕는다		다소기꺼이 돕는다		다소 꺼린다		매우 꺼린다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AIDS 환자의 수술	13	4.8	38	14.1	131	48.5	88	32.6
AIDS 산모의 출산	13	4.8	52	19.3	124	46.1	80	29.7
HIV양성환자의 혈액투석	14	5.2	43	16.0	139	51.7	73	27.1
B형 간염환자	34	12.7	121	45.1	97	36.2	16	6.0
유방암 환자	181	67.3	73	27.1	10	3.7	5	1.9

이들 중 최근 1년간 주사바늘에 찔린 경험이 있는 경우는 68.4%(184명)이었다.

〈표 4〉 AIDS에 대한 위험인지 정도 (n=270)

내 용	인지 정도	
	구 분	실수 %
직업이 AIDS에 노출될 위험	아주 위험이 크다	83 31.0
	중정도의 위험이 있다	90 33.6
	거의 위험이 없다	63 23.5
	전혀 위험이 없다	32 11.9
환자로부터의 AIDS 감염	매우 걱정한다	57 21.3
	다소 걱정된다	137 51.1
	거의 걱정하지 않는다	59 22.0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15 5.6
의료요원의 AIDS 감염위험	매우 높다	59 22.0
	다소 높다	148 55.2
	보통이다	46 17.2
최근 1년간 바늘에 찔린 경우	매우 낮다	15 5.6
	없었다	184 68.4
	없었다	85 31.6

4. 질병별 환자에 대한 수용도

질병별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수용도를 조사한 바 〈표 5〉로는 간호사들은 AIDS환자의 수술에 대해서는 매우 꺼린다 32.6%, 다소 꺼린다 48.5%로 81.1%가 꺼리는 태도를 보였고, AIDS 산모의 출산의 경우 75.8%, AIDS 환자의 혈액투석 시에는 78.8%로 AIDS 환자의 경우에는 모두가 75% 이상이 기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유방암 환자에 대해서는 아주 기꺼이 돕는다.67.3%, 다소 기꺼이 돕는다27.1%로 94.4%가 대부분 돕겠다는 태도를 나타냈고, B형 간염 환자에 대해서는 돕겠다 57.8 %, 꺼린다 42.2% 로 나타나 AIDS 환자와 유방암 환자 두 경우의 중간적인 태도를 보였다.

(n=270)

<표 6> AIDS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이유

(n = 270)

태도	실수	%	이유	
AIDS 환자 간호를 선택할 것인가	예	38	14.4	환자로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므로(25) 주의하면 문제가 없으므로(2)
	아니오	110	41.7	감염위험(68) 전문지식이 없으므로(3)
	모른다	116	43.9	
모든 의료요원이 HIV 검사를 받아야하나	예	196	74.0	의료요원은 감염위험이 높으므로(80) 의료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해(14)
	아니오	31	11.7	필요시에만 검사(11)
	모른다	38	14.3	
AIDS환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하나	예	38	14.2	사회적 책임(13) 성경에 위배(1)
	아니오	112	41.8	병이 죄의 결과이므로 불쌍하다(25) 무지의 결과이므로(9)
	모른다	118	44.0	
AIDS환자 간호에 정부가 돈을 지불해야하나	예	169	63.8	국가,사회,세계적 문제이므로(52) 감염방지를 위한 격리에 비용 소요(18)
	아니오	40	15.1	본인 예방이 필요하므로(5) 개인과 국가가 같이 부담해야 한다.(4)
	모른다	56	21.1	
의료인이 AIDS 환자 치료/간호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나	예	128	48.3	자기자신을 보호해야하므로(37) 의료요원 각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 져야한다(25)
	아니오	66	24.9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감(20) 회생 봉사해야하므로(6)
	모른다	71	26.8	
AIDS 환자도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치료받아야 하나	예	226	85.3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므로(56) 인권에 속하므로(26)
	아니오	13	4.9	치료제가 없으므로(4) 다른 환자에게 공포감을 주지않기위해(4)
	모른다	26	9.8	

5. AIDS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이유

AIDS 환자에 대한 간호사들의 태도를 묻고 각자의 태도에 대해 그 이유를 직접 기술하여 쓰도록 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AIDS환자 간호를 선택하려면 거부하겠다는 사람은 41.7%(110명)이었는데 그 이유를 밝힌 사람 중 68명이 감염위험 때문이라고 답하였으며, 간호하겠다는 태도를 지닌 사람은 14.4%에 불과했는데 그 중 25명이 환자로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25명) 이유를 밝혔으며, 43.9 %는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모든 의료요원이 HIV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답한 사람은 74.0%(196명)으로 감염위험이 높기 때문

(80명)인 것을 이유로 꼽았다. 11.7%는 아니오 라고 답하였는데 필요시에만 검사하면 된다(11명)고 하였다.

AIDS 환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벌받아야 하나에 대해 41.8%(112명)가 아니오 라고 답하였는데 불쌍하다(25명)는 동정론이 주된 이유였다. 예라고 답한 사람들(38명)은 사회에 대한 책임(13)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절반 정도인 44.0%(118명)는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AIDS환자 간호에 정부가 돈을 지불해야 하나에 대해 63.8%(169명)가 예라고 답하였다. 그 이유를 국가, 사회, 세계적 문제이므로(52명)라고 하였다.

의료인이 AIDS 환자의 치료/간호를 거부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태도인 사람이 128명(48.3%)

이었으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37명), 자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므로(25명)라고 이유를 답하였다. 거부할 수 없다는 태도를 나타낸 사람은 66명(24.9%)이었는데, 전문직으로서의 책임감(20명)과 희생봉사 해야하므로(6명)를 이유로 들었다.

AIDS 환자도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에 대해 85.3%(226명)가 예라고 답하여 치료를 해야함에 동의하였고,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므로(56명) 및 인권에 속하므로 (26명)를 이유로 들었다.

V. 논 의

AIDS의 정의, 감염 경로,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지식을 묻는 14개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 점수는 11.01 (100점 만점의 경우 81.4점)로 전춘영 등(1996)이 조사한 간호사의 AIDS 교육 실시 전 지식정도가 평균 61.3 이었고, 의료인을 포함한 건강관리자들이 20개의 AIDS 지식 문항에 대한 교육 전 점수(장순복, 이창우, 1997)가 평균 65.8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답율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식관련 문항 수와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직접비교는 어렵다.

간호사들은 AIDS의 정의와 일반적인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이 대부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Rae(1993)가 332명의 간호사에게 실시한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연구에서도 감염경로 관련 문항에 대해 정답자가 81.8% 이상으로 다른 내용에 비해 정답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감염경로 중 하나인 AIDS 감염자의 모유수유는 영아에게 AIDS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한 정답율은 69.3%에 불과했다. 이는 간호사의 1/3이 모유수유로 인한 감염을 모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AIDS 감염자의 어머니로부터 태아감염이 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91.9%가 예라고 맞게 답한 것에 비해 훨씬 낮은 수치였다. 이는 Rae(1993)의 연구에서 HIV가 모유로 전염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간호사는 거의 없다고 밝힌 것과 유사한 결과이며, 신과 홍(1996)이 대구 경북 지역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임신부의 태아감염가능성에 대해서는 85.6% 올바르게 답하였으나 모유수유의 영아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는 50.9%만이 그렇다고 답하여 정답율이 다른 문항보다 낮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어서, 간호사나 일반학생들이나 모두 HIV감염자의 모유수유가 AIDS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함을 드러낸 결과이다.

현재 전 세계 AIDS 감염자의 10-20%가 소아이며 (김준명, 1998; 정두련, 1998) 후진국의 경우 15세 이하 어린이의 AIDS 감염의 90%가 HIV양성 어머니로부터 모유를 통해서나 임신 중에 바이러스를 물려받은 수직감염이다(정두련, 1997; Quinn, 1996). 1998년 3월말에 이미 우리나라도 수직 감염의 1예가 보고된 상태인데(대한에이즈협회, 1999 5,6), 최근의 여성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남성 감염자의 연령이 주로 성적활동이 가장 활발한 2,30대인 점은 감염자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모유수유 권장 추세로 인해 (UNICEF, 1993) 영아감염이 나타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AIDS 관련 교육에서는 HIV 감염 모성의 모유수유를 통한 감염가능성을 더욱 강조하고, 특히 여성감염자 및 환자관리에서는 모유수유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시켜야 하겠다.

정답율이 50%이하로 나타난 항목은 마약투여와 관련한 AIDS 감염가능성에 대한 것들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순복, 이창우(1997)의 건강관리자 교육에서는 마약주사 사용자가 감염위험성이 크다는데 대해 90%의 높은 정답율을 나타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사용자의 AIDS 감염이 보고되지 않아 문제시되지 않고 있고 조사대상자들이 마약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집단인 때문으로 사료된다. Lewis(1991)의 조사에서는 간호사들이 정맥주사마약으로 인한 AIDS 감염자를 가장 간호하기 힘든 사람으로 꼽으며 간호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orrester(1992)가 간호사 3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맥주사마

약 투여 기왕력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편견정도가 더 심하고 ($P=0.0001$), 마약투여경력이 없는 환자에 비해 간호하기를 꺼려하였는데($P=0.0007$), 마약투여 환자들은 자신들의 건강에 관심을 두지 않아 다루기 힘들기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개방화 정책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마약 사용자의 증가와 함께 그로 인한 AIDS환자 발생도 예상되며, 감염 경로 중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AIDS 예방과 관리를 위한 모든 교육과정에서는 마약투여자와 AIDS 감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어줌으로써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IDS는 콘돔을 사용함으로써 예방될 수 있다(73.7%), 동성간의 성관계가 AIDS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77.8%)는 다른 문항에 비해 정답율이 떨어졌다. 신영희, 홍영혜 (1994 a)의 조사에서, 대구 경북 지역 일반대학생들은 콘돔 사용이 AIDS를 예방할 수 있다에 대해 61.1%의 정답율을 보여 본 조사의 간호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진기남(1998)이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5.7%로 간호사들보다 더 정답율이 높았다. 따라서 성과 관련한 AIDS 문제들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의 지식 정도가 높지 않음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간호사의 계속교육 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점이다.

AIDS는 조기치료가 될 수 있다(80.7%), HIV 감염자는 치료될 수 있다(76.3%)는 문항에서도 정답율이 낮아 치료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한 간호사들이 많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간호사들은 대체로 의료인의 감염위험이 높다고 생각하고(77.2%), AIDS 감염을 우려하고(72.4%) 있었다. Gee(1993)는 50-70%의 간호사들이 AIDS 감염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여 본 조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Raffin(1993)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간호사들 중 평균간호사의 81%, 간호관리자들의 63%가 자신의 감염위험을 우려한 것보다 유사한 결과이다. 진기남(1998)이 일반 직장인 14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감염위험에 대한 걱정이 된다고 답한 사람은 34.3%로, 본 조사 대상 간호사가 2배 정도 높은 감염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이는 간

호라는 직업자체가 AIDS 노출 위험이 크다고(64.6%)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인지와 우려는 AIDS 환자를 간호하겠다는 수용도에도 영향을 미쳐 다른 질환에 비해 AIDS 환자에 대한 수용도는 현저히 떨어짐을 볼 수 있었는데, Forrester(1992)의 연구에서도 360명의 간호사에게 진단명에 따른 접촉의사를 물었을 때, AIDS 환자에게는 백혈병 진단을 받은 환자보다 AIDS 환자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P<0.0001$)를 보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실제 HIV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에 한 번 노출되었을 때의 감염확률은 0.2% 정도로, HBeAg(+) B형 간염에 노출시 감염확률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떨어지는 것(우준희, 1998) 임에도 불구하고 B형 간염환자에 비해 AIDS 환자에 대한 수용도가 낮은 것은 AIDS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것도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질환에 대한 지식의 교육이 AIDS에 대한 태도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IDS 환자 간호의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거부하겠다는 태도와 간호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태도가 절반에 가까웠으며 모두가 감염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Wiley 등(1990)의 연구에서는 2/3의 간호사들이 HIV 감염자 간호거부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50%이상이 선택권이 있다면 거부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Melby, Boore & Murrey (1992)가 북아일랜드의 간호사 800명을 대상으로 AIDS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43.0%가 AIDS 환자간호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데 동의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동서양 공히 절반 정도의 간호사들이 간호를 거부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van Wissen(1994)의 포커스 집단 면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환자간호의 결정권이 간호사에게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Reed(1984)가 간호사 267명에게 AIDS와 관련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로는 AIDS 환자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들(27.3%)중 7.1%의 간호사들이 AIDS 환자 간호를 거부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66.7%가 불안을 호소하였고 감염에 대한 공포가 가장 문제라고 밝혔다. Meisenbelder(1989)는 AIDS 감염에 대한 공포는 AIDS의 상징적 의미 즉 미스테리, 죽음, 별, 성 기능 등과 연관된 것들을 지각한 데 따른 스트레스의 정서적 반응이라고 하였으며, 그것이 질환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는 유교문화에 정서적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 간호거부를 나타내는 이유 중의 한 요인으로 꼽지 않을 수 없다. Breault(1992)는 AIDS에 대한 간호사들의 부정적 태도들은 교육과 준비부족이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장순복, 이창우(1997)는 교육에 의해 AIDS 관련 수용태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나, 전춘영 등(1990)과 Melby 등(1992)은 교육에 의한 지식획득이 부정적 편견이나 태도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Robbins, et al.(1992)의 연구에서는 AIDS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은 간호사들이 지식정도가 낮은 학생들보다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부정적 태도는 지식보다는 환자와의 접촉에 의해 개선된다고 주장하였다. Kemppainen(1992)의 연구에서는 AIDS 환자 간호 경험이 적은 간호사들이 많은 간호사들보다 환자를 간호하겠다는 의지가 더 컸다고 밝혔으나, Rae(1992)의 연구에서는 AIDS 환자 간호경험이 있는 간호사들이 더욱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하였다. 한편 McCann(1997)은 질적 연구를 통하여 전문직업적 관점에서 간호와 치료가 의무라고 믿고 있는 간호사와 의사들은 AIDS 환자를 기꺼이 치료하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AIDS 감염에 대한 공포와 환자간호 거부 현상에 대한 설명은 연구들 간에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AIDS에 대한 지식교육의 부족, 환자간호 경험의 부족 또는 전문직업 의식의 결여 등 어디에 그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인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규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 및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간호거부 현상을 줄이고,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며, 나아가 직업적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IDS 환자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파

는 대조적으로 AIDS환자도 치료받아야 하며(85.3%), AIDS 관리는 국가 및 사회적 문제(52명)이므로 AIDS 환자 간호에 정부가 돈을 지불하여야 한다(63.8%)고 답하였다. 박현주(1997)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AIDS 교육과 관리는 국가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본 조사의 간호사집단의 경우 보다 많은 92.2%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대중들과 마찬가지로 간호사들도 AIDS환자의 관리에 대해서는 같은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호사들이 환자간호를 거부하고 싶다고 한 태도와는 상반된 것으로, AIDS에 대해 가진 공포나 불안감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수용적인 태도가 AIDS 환자의 관리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하는 추정도 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AIDS의 관리와 예방을 일 개인의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통제하고 관리하여야 할 심각한 문제로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등록간호사들을 대상으로 AIDS에 대한 지식과 AIDS 환자 간호에 대한 태도를 서술적 조사연구 하였다. 1998년 5월에서 7월까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4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보고하게 하고 수집된 270명의 자료를 SAS로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AIDS에 대한 지식정도의 정답율은 AIDS의 정의에 대해서는 94.4%,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정답율을 보였으나, 감염자의 모유수유를 통한 영아 감염의 경우 69.3%로 정답율이 비교적 낮았다. 정답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마약투여자의 감염위험 44.1%, 정맥주사마약 투여자와의 성관계시의 감염위험 39.6% 이었다.

학력이 높은 간호사의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0.0032$).

간호사중 64.6%가 직업적으로 AIDS에 노출될 위험을 우려하고 있으며, 환자로부터의 감염을 걱정하고 있는 간호사는 72.4%였다.

간호사들은 AIDS 환자의 수술(81.1%), 출산(75.8%) 및 혈액투석(78.8%)에 대해서는 간호를 꺼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AIDS환자 간호를 선택하라면 거부하겠다는 사람은 41.7%였으며, 모든 의료요원이 HIV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답한 사람은 74.0%였고, 감염위험을 첫째 이유로 들었다.

의료인의 AIDS환자의 치료/간호 거부를 48.3%가 허용해야 한다고 답하였고, 자기 자신의 보호와 선택의 권리를 이유로 들었다. AIDS 환자간호에 정부가 돈을 지불해야하며(63.8%), AIDS 환자도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85.3%)고 하였으며, 각각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을 이유로 들었다.

AIDS환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벌받아야하나에 대해서는 41.8%가 아니오로 답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간호사들의 AIDS에 대한 지식이 일부에 편중되어 있고, 학력이 AIDS의 지식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점으로 미루어 계속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교육내용에서는 감염모성의 수유로 인한 영아감염, 마약투여자의 감염위험에 대한 것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겠다.

절반에 가까운 간호사들이 감염위험을 우려하여 AIDS 환자 간호에 대해 거부하고 싶다는 태도를 표하고 있는 것은 증가가 예상되는 AIDS 감염자 및 환자의 관리와 질적인 간호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러한 거부적 태도를 낳게 한 원인을 규명해야하고, 태도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안을 수립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간호사들이 밝히고 있는 거부의 이유인 감염의 위험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직접적으로 다루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간협신보 (1998). 제102호, 7월 9일자, 1면.

김정순 (1994). AIDS와 그 예방전략. 보건학회지 31(1), 7-19.

김영희 (1990). AIDS환자에 대한 간호학생의 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 경기지역 일개간호대학생을 중심으로. 성인간호학회지, 2, 124-135.

김준명 (1998). 에이즈상담의 실제 : 에이즈 관리를 위한 간호사교육. 대한에이즈예방협회, 61-70.

대한에이즈예방협회 (1999). 세계 HIV/AIDS의 현황. AIDS, 26, 30-31.

동방승희 (1988).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현주 (1997). 에이즈캠페인 설문조사. AIDS, 16, 22-24.

송영구 (1998). HIV 감염의 증상 및 치료 : 에이즈관리를 위한 간호사교육. 에이즈예방협회, 9-22.

신영희, 홍영혜 a (1996). 대구경북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대한간호, 35(1), 94-102.

신영희, 홍영혜 b (1996). 부산 및 울산지역 일부 대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지식 및 태도조사. 대한간호학회지, 26(1), 33-42.

안윤옥, 이충민, 김대성 (1999). 한국의 향후 HIV 감염 및 AIDS환자 발생의 예측. AIDS, 26, 11.

양봉민 (1998). 에이즈의 경제적 영향 : 에이즈관리를 위한 간호사교육. 대한에이즈예방협회, 41-52.

우준희 (1998). 의료행위중 HIV 감염예방 : 에이즈 관리를 위한 간호사교육. 대한에이즈예방협회, 23-30.

유니세프 (1993).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교육 지침서. UNICEF.

윤현숙 (1997).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교육이 여고생들의 에이즈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덕형 (1998). 우리 나라의 AIDS 현황과 대책. AIDS, 20, 14-15.

이영나 (1990). 부산시내 일부 고등학생과 간호대

학생들의 AIDS 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부산대
학교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희승 (1989). 국어사전, 제3판, 민중서관, 2010.
- 장순복 (1994). 가임여성의 에이즈 관련 지식과 태도. 대한간호, 33(5), 46-62.
- 장순복, 이창우 (1997). 건강관리자의 에이즈 교육 효과. 간호학회지, 27(1), 201-211.
- 정두련 (1998). 에이즈의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의 특징 : 에이즈 관리를 위한 간호사 교육. 대한에이즈예방협회, 1-8 .
- 전춘영, 임영신, 김조자, 김용순, 박지원 (1997). AIDS환자 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와 지식 조사 연구. 대한간호, 27(4), 75-87.
- 조성익 (1998). 에이즈 감염자 설문 조사. AIDS, 20, 26-33 .
- 진기남 (1998).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 에이즈 예방교육의 효과. 보건복지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채영석 (1997). 이제는 인간중심의 패러다임으로. AIDS, 19, 5.
- 최철호 (1999). 우리나라의 AIDS 현황과 관리대책. AIDS, 26, 16-17.
- 황인선 (1992). 에이즈 보건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에이즈 지식과 태도변화.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대식 (1986). 사회심리학개론, 박영사, 388.
- Armstrong-Esther C., & Hewitt, W. E. (1989). Knowledge and perception of AIDS among Canadian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4, 923-938.
- Breault, A. J., & Polifroni, E. C. (1992). Caring for people with AIDS : nurses' attitudes and feeling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7, 21-27.
- Chang, S. B., & Hill, M. N. (1996). HIV/AIDS related knowledge, attitudes, and preventive behavior of pregnant Korean woman. Image :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8(4), 321-324.
- Fishl, M. A. (Eds.) (1987). The efficacy of Azidothymidine(AZT)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AIDS and AIDS related complex. N. Engl. J. Med. 317, 185-191.
- Forrester, D. A., & Murphy, P. A. (1992). Nurses' attitudes toward patients with AIDS and AIDS related risk factor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7, 1260-1266.
- Kemppainen (Eds.) (1992). Nurses willingness to perform AIDS patients care,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3(3), 110-117.
- Lewis, C. E., & Coffee, J.. Public health nurses and AIDS, Nursing Outlook, 39(3), 132- 135.
- McCann, T. V. (1997). Willingness to provide care and treatment for patients with HIV/AID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 1033-1039.
- Meisenbelder, J. B., & LaCharite, C. L. (1989). Fear of contagion : Astress response to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dv. Nurs. Sci, 11(2), 29-38.
- Quinn, T. C. (1985).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AIDS, JAMA, 253, 247-249.
- Rae, D., Brown, Y., & Calder, B. (199). Nurses'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patients with AIDS.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3(3), 69-75.
- Raffin, R. A., Gilles, D. A., Hough, E. E., & Biordi, D. L. (1993). Managing HIV-positive and AIDS risks : educational and psychosocial resource assessment. Nursing Management, 24(2), 48-53.
- Reed P., Wise T. N., & Mann, L. S. (1984). Nurses attitudes regarding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Nursing Forum, 21(4), 153-155.

- Robbins, J., Cooper, A., & Bender, M. P.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 attitudes and degree of contact with AIDS and HIV.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7, 198-203.
- Van Servellen, M., & Leake B. (1988). Nurses's responses to the AIDS crisis : Implications for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19, 4-8.
- Van Servellen, M., Lewis, C. E., & Leake, B. (1987). How nurses feel about AIDS. Nursing, 87, october, 8
- Simininoff, L. A., Erlen, J. A., & Lidz, C. W. (1991). Stigma, AIDS and quality of urning care : state of the scien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 262-269.
- Whipple, B. (1995). Common questions about woman and HIV/AIDS. AJN, July, 16A-16B.
- Wiley, K., Heath, L., Acklin, M., Earl, A., & Barnard, B. (1990). Care of HIV infected patients : nurses concerns, opinions and precautions. Applied Nursing Research, 3(1), 27-33.
- Van Wissen, K., & Woodnam, K. (1994). Nurses attitude and concerns to HIV/AIDS : a focus group approa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 1141-11.

Abstract

Key concept : AIDS, nurse, knowledge, attitude,

Nurses' Knowledge about and Attitudes toward AIDS and Patients with AIDS

Son, Jung Tae*

With the increasing incidence of AIDS, it is probably inevitable that nurses working in hospital and community settings will come in contact with patients with AIDS. Nurses, more than any other health care profession, are on the front line of AIDS patient care.

The purposes of this descriptive study were to gather information about registered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 regarding AIDS, and to provide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for the nurse.

Data was gathered in 1988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given to a convenience sample of two hundred seventy registered nurses from two university hospitals, school nurses and postgraduate students of nursing. Data was analyzed with SA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Above 90% of the nurse knew well about definition of AIDS and routes of transmission but nurses relatively lacked knowledge about transmission of HIV in breast milk(69.3%). Less than half knew that drug abuser(44.1%) and sexual partner

*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Taegu Hyosung.

with IV drug abuser(39.6%) are at high risk for contracting AIDS.

Above 70% of the nurse showed reluctance to provide care for surgery, delivery of child birth and hemodialysis of patients with AIDS. The results showed that, given a choice, 41.7% of the nurse would refuse to care for AIDS patients and 48.3% claimed that they should have a right refuse to care for AIDS patients.

Reluctance of nursing patient with AIDS appeared to be principally associated with general fear of becoming infected with HIV.

41.8% exhibited a sympathetic attitude toward individual AIDS patient.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orrelations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and to develop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that alleviate the fear of contagion of the nurse.